

# 사미헌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에 대한 고찰\*

안 유 경\*\*

- I. 서론
- II. 「숙흥야매잠」의 내용과 『숙흥야매잠집설』의 구성 및 체제
- III.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구조
  - 1. 경이란 무엇인가.
  - 2. 경은 안과 밖에 부합한다(合内外).
  - 3. 경은 동과 정을 관통한다(貫動靜).
  - 4. 경의 공효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四末軒(張福樞, 1815~1900)의 『夙興夜寐箴集說』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를 고찰한 것이다.

「숙흥야매잠」은 중국 남송 때의 남당(진백)이 지은 것으로서, 이른 아침부

---

\*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에는 敬의 실천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퇴계는 『성학십도』의 제9도와 제10도에 각각 수록하여 경의 실천방법과 원리를 자신의 수양론에 일관되게 관찰시킴으로써 퇴계 수양론의 두 축을 형성한다.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에 대한 퇴계의 중시와 함께 조선의 유학자인 대산(이상정)은 『경재잠집설』을 저술하고 사미헌은 『숙흥야매잠집설』을 저술한다. 이에 본 논문은 수양론의 두 축에 해당하는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밝히고자 대산의 『경재잠집설』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의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 전개과정에서 『경재잠집설』의 구성 및 체제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敬齋箴集說』속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 『온지논총』50, 온지학회, 2017 참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연구원 / ykan2008@hanmail.net

터 늦은 밤까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떻게 경을 실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퇴계는 이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숙흥야매잠도」) 『성학십도』의 제10도에 수록한다.

한편 사미현은 퇴계의 「숙흥야매잠도」의 구성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여러 선현들의 격언을 뽑아 모아서 장별로 분류하여 『숙흥야매잠집설』을 저술한다. 『숙흥야매잠집설』이란 말 그대로 「숙흥야매잠」의 중심개념인 敬에 대한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놓은 ‘집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경에 대한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놓은 사미현의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경’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밝힌 것이다.

◆ 주제어

사미현(장복추), 숙흥야매잠집설, 경, 내외, 동정

## I. 서론

본 논문은 四末軒(張福樞, 1815~1900)의 『夙興夜寐箴集說』에 보이는 경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숙흥야매잠집설』의 발문에는 책의 편찬경위에 대한 西原(鄭吾釋)의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숙흥야매잠」은 겨우 이백마디의 말이지만 밤낮이 서로 돌아오고 動靜이 서로 길러져서 하루로부터 종신에 이르기까지 쓰임이 끝이 없으니 지극한 말이다. 이 때문에 노재가 벽에 걸어두고 퇴계가 圖를 만들고 소재가 註를 달았으니 드러내고 발명한 것이 또한 매우 명백하나, 다만 글자의 훈과 구절의 해석이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유추해석하여 회통하는 경지에 이르는 데는 미진하였다. 사미헌선생이 이것을 병으로 여기고 일찍이 독서하고 몸소 실천하는 여가에 송나라와 우리나라 여러 선생들의 격언을 뽑아 모으고 章에 따라 분류하여 『숙흥야매잠집설』이라 이름하였다.<sup>1)</sup>

남당(진백)의 「숙흥야매잠」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떻게 경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써, 겨우 이백마디의 말에 불과하지만 종신토록 실천하더라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지극한 말이다. 때문에 노재(왕백)는 그것을 벽에 걸어두고 교훈으로 삼았으며, 퇴계는 그것을 도설로 만들어 『성학십도』 제10도에 수록하였으며, 또한 소재(노수신)는 「夙興夜寐箴註解」라는 해설을 달기도 하였다. 「숙흥야매잠」을 두고 학자마다 나뉘대로 해석을 달거나 그 중요성을 제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가지는 글자의 뜻이나 구절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그 의미를 유추하여 해석할 뿐이고, 실제로 敬의 이론체계에 회통시켜 해석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

1) 『夙興夜寐箴集說』跋, “箴僅二百言, 而晝夜相環, 動靜交養, 自一日而至終身, 用之不窮, 蓋至言也. 是以魯齋揭之壁, 退陶建之圖, 蘇齋爲之註, 所以表章而發明之者, 亦甚明白. 而第其字訓句釋, 太從簡約, 至於旁推類解致夫會通之域, 則未也. 四末軒張丈是之病, 嘗於讀書躬行之暇, 採摭宋若東諸先生格語, 逐章類附, 名曰夙興夜寐箴集說.”

여 사미현은 중국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여러 격언을 뽑아 모아서 장별로 분류하여 『숙흥야매잠집설』을 저술하였다.

또한 사미현은 남당의 「숙흥야매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나라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근거로 하여 분명히 안 뒤라야 그 의미를 모두 드러낼 수 있다”<sup>2)</sup>라고 하여, 주자와 정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선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선현들, 특히 퇴계(이황)·소재(노수신)·한강(정구)·대산(이상정)·여헌(장현광) 등의 학설을 덧붙였다. 즉 남당의 「숙흥야매잠」 내용에다 중국과 우리나라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덧붙인 것이 바로 『숙흥야매잠집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약하면 200여 글자에 불과하나 넓히면 한 권의 책이 된다고 하였다.<sup>3)</sup>

이에 본문에서는 「숙흥야매잠」의 내용과 『숙흥야매잠집설』의 구성 및 체계를 소개하고,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분석한다. 「숙흥야매잠」과 관련된 연구는 주자의 ‘경’사상 또는 퇴계의 ‘경’사상, 특히 퇴계 『성학십도』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sup>4)</sup>, 또한 『숙흥야매잠집설』에 관한 연구로도 정순우의 「사미현 장복추의 『숙흥야매잠집설』 연구」<sup>5)</sup>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미현이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퇴계의 경에 대한 해석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데 주목하고, 경에 대한 퇴계와의 이론적 차이를 19세기라는 시대상황의 변화와 연결시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방향을 달리하여, 사미현의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2) 『夙興夜寐箴集說』序, “必於宋若東諸先輩之說, 而類推旁通然後, 可以盡指意歸趣之所極焉耳.”

3) 『夙興夜寐箴集說』跋, “約之則爲二百言, 博之則爲一卷.”

4)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에서 편찬한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예문서원, 2009)와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다.

5) 정순우, 「사미현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 연구」, 『영남학』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숙흥야매잠집설』이란 말 그대로 「숙흥야매잠」의 중심 개념인 敬에 대한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놓은 ‘집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경에 대한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놓은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정주 이래 유가의 수양론을 대표하는 敬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구조와 체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숙흥야매잠」의 내용과 『숙흥야매잠집설』의 구성 및 체계

「숙흥야매잠」은 중국 남송 때의 南塘(陳柏)이 지은 것으로, 52句 208字로 이루어진 짧은 글이다.<sup>6)</sup> ‘숙흥야매’라는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잔다는 뜻이다.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숙흥야매잠」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의 일과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의 실천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새벽에 일어나 생각을 정돈하고, 세수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마음이 맑고 고요해진 다음에 독서하고 일에 응한다. 이러한 자세로 낮 동안 부지런히 노력하고, 밤이 깊어 잠잘 때도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심신을 편안히 잠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늦은 밤 잠들 때까지 한결같이 경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니, 독서할 때도 경을 유지하고, 일에 응할 때도 경을 유지하며, 잠잘 때도 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箴의 이백 마디의 말은 곧 敬 한 글자의 각주에 불과하다”<sup>7)</sup>거나 “한편의 강령은 오로지 敬에

6) 鷄鳴而寤, 思慮漸馳, 盍於其間, 潛以整之. 或省舊愆, 或紬新得, 次第條理, 瞭然默識. 本既立矣, 味爽乃興, 盥櫛衣冠, 端坐斂形. 提掇此心, 噉如出日, 嚴肅整齊, 虛明靜一. 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 聖師所言, 親切敬聽, 弟子問辨, 反復參訂. 事至斯應, 則驗於爲, 明命赫然, 常日在之. 事應既已, 我則如故, 方寸湛然, 凝神息慮. 動靜循環, 惟心是監, 靜存動察, 勿貳勿參. 讀書之餘, 間以遊泳, 發舒精神, 休養情性. 日暮人倦, 昏氣易乘, 齋莊整齊, 振發精明. 夜久斯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心神歸宿. 養以夜氣, 貞則復元, 念茲在茲, 日夕乾乾.

있으니 敬은 한결같이 하는 것일 뿐이다”<sup>8)</sup>라고 하였던 것이다.

사미헌에 따르면, 「숙흥야매잠」은 남당이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지은 것으로써, 말이 간결하고 뜻이 정밀하여 주자의 「敬齋箴」과 더불어 표리가 된다. 그래서 「숙흥야매잠」과 「경재잠」의 서술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둘은 서로 필요로 하는 공부방법이라고 강조한다.<sup>9)</sup> 주자의 「경재잠」에서도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높게 하며, 손가짐은 공손하게 하고, 발걸음은 무겁게 하는 몸가짐으로부터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경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이에 퇴계는 “「경재잠」은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할 자리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 따라 해야 할 공부를 배열하여 도설을 만들었고, 「숙흥야매잠」은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그 때에 따라 해야 할 공부를 배열하여 도설을 만들었다”<sup>11)</sup>라고 하여, 「경재잠」이 하루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리(공간)에 따른 경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숙흥야매잠」은 새벽낮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일과 속에서 여러 때(시간)에 따른 경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가 어디라도 있지 않는 곳이 없고 언제라도 있지 않는 때가 없는 것처럼, 경의 수양공부도 공간에 따라서도 설명해 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7) 『夙興夜寐箴集說』跋, “是箴二百言, 卽不過敬一字註脚耳.”

8) 『夙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蘇齋曰, 一篇綱領, 專在於敬, 敬者一而已矣.”

9) 『夙興夜寐箴集說』序, “肆昔南塘陳先生, 卽其躬行心得之餘, 而著之爲箴, 言句簡嚴, 意寄精深, 與朱夫子敬齋箴爲表裏, 而有地頭時分, 相須之工矣.”

10) 주자의 「敬齋箴」은 모두 10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章은 4句, 각 句는 4言으로 되어 있는 총 160 글자의 짧은 잠언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戰戰兢兢, 罔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 洞洞屬屬, 罔敢或輕. 不東以西, 不南以北. 當事而存, 靡他其適. 弗貳以二, 不參以三. 惟心惟一, 萬變是監. 從事於斯, 是曰持敬. 動靜不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斁. 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

11) 『退溪全書』卷7, 「第10 夙興夜寐箴圖」, “蓋敬齋箴有許多用工地頭, 故隨其地頭, 而排列爲圖; 此箴有許多用工時分, 故隨其時分, 而排列爲圖.”

설명해 주어야 그 실제적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마치 그물을 찌듯이 종횡으로 교차하여 수양공부를 번갈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퇴계는 “과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나 털끝만한 잘못이 없을 것이요, 어느 때에서나 잠 시라도 끊어짐이 없을 것이니, 두 가지 공부를 함께 해나가면 성인이 되는 요령이 바로 여기에 있다.”<sup>12)</sup> 즉 성인이 되는 요령이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의 두 가지 수양공부를 동시에 실천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퇴계가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의 도설을 각각 만들어 『성학십도』의 제9도와 제10도에 상대시켜 수록한 이유이기도 하다.<sup>13)</sup>

같은 맥락에서 사미헌 역시 자신이 지은 『숙흥야매잠집설』이 결국 대산(이상정)의 『경재잠집설』과 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려서 대산의 『경재잠집설』을 읽고 많은 감흥을 얻어서 그 책의 규정과 용례를 모방하여 『숙흥야매잠집설』을 만들었으니, 둘은 서로 필요로 하는 공부로써 어느 한쪽을 폐기해서는 안된다.”<sup>14)</sup> 대산 역시 “「경재잠」은 자리로 말하지만 때가 그 속에 있고 「숙흥야매잠」은 때로 말하지만 자리가 그 속에 있으니, 각각 그 중시하는 곳에 나아가 구분을 달리하였을 뿐이지만 일찍이 서로 발명하지 않음이 없다”<sup>15)</sup>라고 하여, 이 두 箴이 각각 중점을 두는 곳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표리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남당의 「숙흥야매잠」에 대해 사미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즉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잘 때까지, 밤늦게 자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날

12) 『聖學十圖』, 「第10 夙興夜寐箴圖」, “果能如是, 則不遺地頭, 而無毫釐之差, 不失時分, 而無須臾之間, 二者並進, 作聖之要, 其在斯乎.”

13) 실제로 『성학십도』 제9도인 「경재잠도」에 나오는 “경은 성학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퇴계의 말에 근거해 볼 때, 퇴계의 수양론과 학문방법론은 제9도에서 다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 번째 「숙흥야매잠도」를 더하였는데,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p.299 참조)

14) 『夙興夜寐箴集說』序, “竊惟大山先生於敬箴鋪敘地頭而既集說矣, 愚自妙齡盥讀而興感焉, 略倣規例, 亦鋪敘時分爲此書, 蓋其相須之工, 有不可廢一也.”

15) 『夙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大山曰, 敬箴以地頭言, 而時分在其中, 是箴以時分言, 而地頭在其中, 各就其重處, 而異其分耳, 然又未嘗不互相發也.”

때까지 한 가지의 일도 소홀함이 없게 하고 한 순간도 태만함이 없게 하여, 시간이 쌓여서 날이 되고, 날이 쌓여서 달이 되고, 달이 쌓여서 해가 되고, 해가 또 쌓여서 나의 몸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경을 유지하면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니, 남당이 자신을 경계하고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 뜻이 지극하다.”<sup>16)</sup> 「숙흥야매잠」의 내용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한결같이 경을 유지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이 조금의 어긋남도 없게 되니 남당이 후학에게 미친 영향이 지극하다는 말이다.

또한 퇴계는 자신의 「숙흥야매잠도」 끝에 붙인 해설에서 “금화 출신 魯齋(王柏)는 일찍이 태주의 상채서원에 교수로 있을 때에 오로지 이 箴으로 가르침을 삼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외우고 실천하게 하였다”<sup>17)</sup>라고 하여, 「숙흥야매잠」이 노재에 의해 존송되어 서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자신이 그린 「숙흥야매잠도」가 노재의 「경재잠도」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한다.<sup>18)</sup> 주자의 「경재잠」을 노재가 도설로 만든 것이 「경재잠도」인데, 퇴계는 이 「경재잠도」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도」를 만들었으며, 퇴계는 이들을 각각 『성학십도』의 제9도와 제10도에 각각 수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숙흥야매잠도」에서 남당 「숙흥야매잠」의 내용을 7장으로 나누어 ①夙寤, ②晨興, ③讀書, ④應事, ⑤日乾, ⑥夕惕, ⑦兼夙夜로 각 장에 제목을 붙이고, 그것을 도설에다 배치하였다. 배치한 구조를 보면 ①과 ②는 이른 아침의 일로써 상단의 좌우에, ③과 ④는 낮 동안의 일로써 가운데의 좌우에, ⑤와 ⑥은 저녁나절의 일로써 하단의 좌우에, 그리고 ⑦은 아침에서 밤까지 전체의 일로써 중심에 있는 敬자의 위아래에 두었다. 중심에 ‘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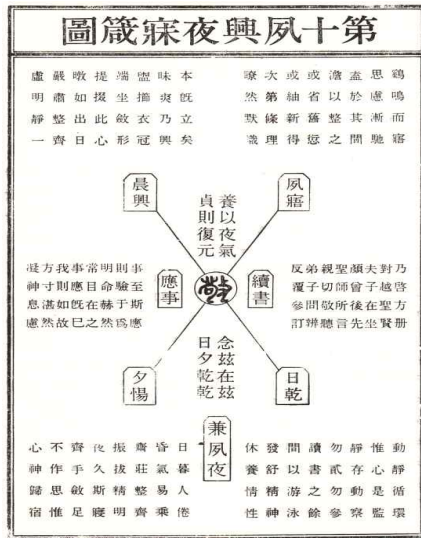
16) 『夙興夜寐箴集說』序, “蓋自夙興至夜寐, 夜寐復至夙興, 無一事之或忽, 無一時之或怠, 時積而日, 日積而月, 月積而年, 年且積而終吾之身, 終始一於敬, 而不知老之將至, 南塘所以警己惠後之意至矣.”

17) 『退溪全書』卷7, 「第10 夙興夜寐箴圖」, “金華王魯齋嘗主教台州上蔡書院, 專以是箴爲教, 使學者人人誦習服行.”

18) 『退溪全書』卷7, 「第10 夙興夜寐箴圖」, “臣今謹倣魯齋敬齋箴圖, 作此圖, 以與彼圖相對.”



를 둔 것은 「숙흥야매잠」의 요지가 경에 일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산은 “퇴계선생이 「경재잠도」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도」를 만들고 경으로써 大旨을 삼았다”<sup>19)</sup>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학십도』 제10도에 수록된 「숙흥야매잠도」이다.



한편 사미헌은 퇴계의 「숙흥야매잠도」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의 내용을 7장으로 나누고, 다시 각 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명대의 유학자인 황돈(정민정)의 『心經附註』의 형식을 모방하여 정자와 주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선현들의 학설과 우리나라의 퇴계소재·한강·여헌·대산 등의 학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그리고 본문 속의 부록은 한강의 『心經發揮』 형식을 활용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爲學之要」라는 주제로 학문하는 요체를 첨부함으로써 학문의 완성이 결국 경에 의해 이루어

19) 『夙興夜寐箴集說』, 「夙興夜寐箴圖」, “大山李先生曰, 退陶先生, 依金華王魯齋敬齋箴圖, 隨其時分, 排列爲圖, 而以敬爲一箴之大旨也.”

짐을 밝히고 있다. 『숙흥야매잠집설』은 대체로 이와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夙寤)	致思/戒馳思/澹整/省愆/紬得/默識 (附)以敬爲本/窮理之功致知之效
제2장 (晨興)	盥櫛端斂/提掇/整肅/虛一 (附)靜坐爲善學/敬靜合一/制外之實存心之要法/敬以直內/持敬之節度存心之要法/內外一敬
제3장 (讀書)	(附)以居敬爲本/精熟/反求諸身/循序而漸進/讀書爲應事之則
제4장 (應事)	驗事爲/常日/事已如故/息慮 (附)隨事致敬/應事之本於明倫/隨至而順應/敬貫動靜
제5장 (日乾)	動靜/靜存/動察/勿貳勿參/游泳/發舒休養 (附)全其心德/存養之功/存養省察/主一兼動靜/主一活法/內外動靜無不敬/拘迫難久悠緩易失
제6장 (夕惕)	戒日暮人倦/齊莊整齊振發精明/夜寐/齊斂/心神歸宿
제7장 (兼夙夜)	夜氣/貞則復元/乾乾 (附) 靜爲養動之本
附錄	爲學之要: 立志好學/致知/誠意/矯偏/求仁/集義/定性/誠

이처럼 사미현의 『숙흥야매잠집설』은 퇴계의 「숙흥야매잠도」의 구성에 근거하되, 그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장 <夙寤>의 단계에서도 생각에 집중하라는 <致思>, 생각이 내닫는 것을 경계하라는 <戒馳思>, 마음을 조용히 정돈하라는 <澹整>, 허물을 살피라는 <省愆>, 잘 헤아려 처신하라는 <紬得>, 고요히 깨달음을 가지라는 <默識> 등으로 세분하고, 이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선현들의 격언을 소개하고 중간 중간에 <案>을 달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이 『숙흥야매잠집설』의 구성 및 체계이다. 이어서 이 책 속에 일관하는 경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자.

### III. 『숙흥야매잠집설』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구조

사미헌은 『숙흥야매잠집설』 서문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람이 천지 사이에 아주 작은 몸이지만 三才에 참여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저 마음이라는 물건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고 感發하여 온갖 일에 대응하니 그 體는 본래 참되고 그 用은 본래 선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품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려져서 이를 경으로 지키지 않으면, 體가 어둡고 用이 혼란해져서 아마도 금수로 돌아가고 초목과도 같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sup>20)</sup>

사람이 천지 사이에서 아주 작은 몸을 가지고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라는 기관은 주로 생각을 주관하는데, “생각이 있는 뒤에 앎이 있을 수 있고, 앎이 있는 뒤에 행할 수 있으니 도덕사업의 기틀이 모두 생각하는데 달려있다.”<sup>21)</sup> 즉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모두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도 구별되니, 생각이 바르면 군자가 되고 생각이 사악하면 소인이 된다. 결국 군자와 소인의 구분도 한 생각의 차이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때, 인간사의 온갖 일들은 모두 생각을 주관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산은 “마음은 텅 비고 신령스러운 것이 한량이 없으므로 천지사방의 밖의 일도 생각하면 곧 이른다”<sup>22)</sup>거나 “우주 만물의 所當然과 所以然의 이치가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

20) 『夙興夜寐箴集說』序, “人於天地之間, 以眇然之身, 能參三才, 靈萬物者, 惟其有心耳. 夫心之爲物, 虛而具衆理, 感而應萬事, 其體則本眞矣, 其用則本善矣. 然一爲氣稟之拘物慾之蔽, 而不以敬持守之, 則體昏用亂, 其不爲歸禽獸同草木也者無幾矣.”

21) 『夙興夜寐箴集說』第1章, 「致思」, “有思然後, 能有知, 有知然後, 能有行, 道德事業之機, 都在於思矣.”

22) 『夙興夜寐箴集說』第1章, 「致思」, “心之虛靈, 無有限量, 如六合之外, 思之卽至.”

다”<sup>23)</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서 온갖 일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은 본래 참되고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본체는 참되고 그 작용은 본래 선하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은 또한 기품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려지기 쉬운데, 이때에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경’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미헌은 경이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세워주는 지팡이라고 설명한다. “敬은 사람을 붙잡아 세워주는 지팡이다. 사람이 방자해지고 태만해질 때를 당하면 곧 이 마음을 붙잡아 세워야 한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비록 조금의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뜻이 있더라도 또한 저절로 물러나게 된다.”<sup>24)</sup> 마음이 방자하거나 태만해질 때에 경으로 붙잡아 세워주면, 방자하고 태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참되고 선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마음이 참되고 선해야 한 몸의 주인이 되어 온갖 일의 강령을 제시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곧장 물욕을 쫓아가서 금수나 초목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래서 ‘금수로 돌아가고 초목과도 같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한 순간도 잡아 지켜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형체가 없고 드러나들이 일정하지 않아 모름지기 規矩와 繩墨에 나아가서 지키고 안정시켜야 저절로 안팎이 안정될 것이다”<sup>25)</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규구’와 ‘승묵’이 바로 경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미헌은 『숙흥야매잡집설』 서문에서 물욕에 빠져서 달아나기 쉬운 마음을 경으로 붙잡아둘 것을 강조한다.

23) 『夙興夜寐箴集說』第1章, 「致思」, “<按>凡宇宙間, 事事物物, 當然所以然之理, 莫不具於吾心.”

24) 『夙興夜寐箴集說』第1章, 「附錄-以敬爲本」, “敬是扶策人底物事. 人當放肆怠惰時, 便扶策得此心起. 常常會怠地, 雖有些放僻邪侈意思, 也自退聽.”

25)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蓋人心無形, 出入不定, 須就規矩繩墨上守定, 便自內外帖然.”

## 1. 경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경이란 무엇인가? 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에서는 경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경이란 의관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전일하게 하며,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며 속이지도 않고 태만하지도 않는 것에 불과하다.<sup>26)</sup>

정제하고 수렴하여 이 身心을 방종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곧 경이다.<sup>27)</sup>

경이란 온갖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마다 專一하고 敬畏하여 放逸하지 않게 할 뿐이다.<sup>28)</sup>

경은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달아나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29)</sup>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경이란 의관을 바르게 하고 정제엄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각을 전일하게 하여 마음이 태만하거나 방자한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이란 크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관을 바르게 하거나 정제엄숙하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 해당되며, 생각을 전일하게 하여 태만하거나 방자한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

먼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남당의 「숙흥야매잠」 첫머리에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관 쓰고 단정히 앉아 몸가짐을 바로 하라”고 강조하였듯이, ‘경’ 공부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자는 敬이란 반드시 정제엄숙하여 의

26)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若程子所謂敬者, 亦不過曰, 正衣冠, 一思慮, 莊整嚴肅, 不欺不慢而已.”

27)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整肅」, “整齊收斂, 這身心, 不敢放縱, 便是敬.”

28)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隨事致敬」, “敬不是萬事休置之謂, 只要隨事專一謹畏不放逸.”

29)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拘迫難久悠緩易失」, “敬只是提起這心, 莫教放散.”

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높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sup>30)</sup>라고 하였다. 또한 尹子<sup>31)</sup>라는 사람이 이천(정이)에게 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기를 청하였을 때, 이천은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가지런히 할 뿐이라고 대답하였다.”<sup>32)</sup> 즉 일상 속에서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가지런히 하는 것이 바로 ‘경’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어디에서 경을 볼 수 있습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상채(사랑좌)는 “용모는 단정하고 엄숙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할 때에 敬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33)</sup>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경의 모습은 구체적인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데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 “앉아 있을 때는 시동처럼 하고, 서 있을 때는 재개하는 것처럼 하며, 머리는 꼳꼳하고, 눈빛은 단정하며, 발걸음은 무겁고, 손모양은 공손하며, 입모양은 지긋이 다물고, 기운은 엄숙하게 하는 것이 모두 敬의 절목이다”<sup>34)</sup>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예기』「옥조」편에 나오는 九容(아홉 가지 용모)<sup>35)</sup>과 같은 것들이 모두 경의 구체적 절목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쪽 뺀고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태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어지러운 곳에 거만하게 있으면서 마음이 태만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정자는 “없다. 덕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용모는 반드시 공손히 하고 언어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sup>36)</sup>라고 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정

30)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程子言敬, 必以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爲先.”

31) 정자의 제자 尹惇을 말한다.

32)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有從伊川學, 令看敬字. 請益, 伊川整衣冠齊容貌而已.”

33)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上蔡謝氏曰, 於嚴若思時, 可以見敬之貌.”

34)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朱子曰, 坐如尸, 立如齊, 頭容直, 目容端, 足容重, 手容恭, 口容止, 氣容肅, 皆敬之目.”

35) 九容의 내용으로는 발걸음은 무겁고(足容重), 손가짐은 공손하며(手容恭), 눈은 단정하고(目容端), 입은 다물며(口容止), 목소리는 조용하고(聲容靜), 머리는 바르게 하고(頭容直), 기운은 엄숙하게 하고(氣容肅),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럽고(立容德), 얼굴모양은 장엄하게 한다(色容裝)는 등이다.(『禮記』, 「玉藻」편 참조)

자는 “엄숙하고 삼가는 것이 敬의 도는 아니지만, 敬을 지극히 하려면 모름지기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sup>37)</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먼저 정제엄숙하여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경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먼저 몸이 단정해야 한다. 갓두간의복산버선으로부터 모두 수렴하고 늘 整齊하도록 해야 한다”<sup>38)</sup>라고 하여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몸가짐만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사미현은 『숙흥야매잠집설』에서 몸을 단정히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잘 수렴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상고의 성현으로부터 정자가 下學을 논설한 곳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살펴 보면, 의관을 바로하고 용모를 엄숙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다.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마음이 보존되어 邪僻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sup>39)</sup>

이천의 整齊嚴肅 한 단락은 더욱 공부해야 하니,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마음은 항상 깨어있다.<sup>40)</sup>

여기서는 밖으로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엄숙히 하면 안으로 마음도 전일하게 되어 사치하고 방탕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즉 밖으로 정제엄숙하지 못하면 안으로도 마음을 보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경은 어떻게 공부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주자는 “단지 안으로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밖으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였다.<sup>41)</sup>

36)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整肅」, “問燕處倨肆, 心不怠慢, 有諸? 程子曰, 無之. 入德必自敬始, 故容貌必恭也, 言語必謹也.”

37)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整肅」, “嚴威儼格, 非敬之道, 但致敬, 須從此入.”

38)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盥櫛端斂」, “先要身體端正. 自冠巾衣服鞋襪, 皆須收斂, 常令整齊.”

39)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提掇」, “朱子答呂伯恭書曰, 詳攷從上聖賢, 以及程子之說論下學處, 莫不以正衣冠肅容貌爲先. 盖必如此然後, 心得所存, 而不流於邪僻.”

40)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整肅」, “伊川整齊嚴肅一段尤功, 人能如此, 則其心常惺惺.”

41)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內外一敬」, “問, 敬何以用功, 朱子曰, 只是內無妄思, 外無妄動.”

여기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主一無適의 개념이 제시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자가 말한 ‘주일무적’이다. ‘주일무적’이란 생각을 전일하게 하여 마음이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당의 「숙흥야매잠」에서 말한 “고요할 때에는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에는 기미를 성찰하여 마음을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마음을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최대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이에 주자는 ‘주일무적’에 대해 “主一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이요, 無適은 생각이 다른 곳으로 내달리지 않는 것이니, 마치 독서할 때는 독서할 뿐이고 옷 입을 때는 옷 입을 뿐인 것과 같다”<sup>42)</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각을 전일하게 하여 최대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책을 읽는데 있어야 하고, 옷을 입을 때는 마음이 옷을 입는데 있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옷을 입는데 있다거나 옷을 입으면서 마음이 책을 읽는데 있어서는 안된다. 즉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는 최대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이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한 가지를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일 속에 쌓여있으나 한꺼번에 모든 일에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처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전일해져서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나에 전일하여 마음을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게 하는 ‘주일무적’의 뜻이다.

또한 ‘주일무적’과 비슷한 방법으로 ‘常惺惺法’과 ‘心收斂不容一物’이 있다. ‘상성성법’은 글자 그대로 항상 마음을 밝게 깨어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자는 “惺惺이란 마음이 어둡지 않는 것을 말하니 이것이 바로 경이

42)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勿貳勿參」, “主一只是心專一, 不以他念雜之, 無適之是不走作, 如讀書時只讀書, 著衣時只著衣了.”



다”<sup>43)</sup>라고 하였다. 마음을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라는 말이다. 마음이 어둡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사물에 응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이란 별개의 어떤 일이 아니라 늘 이 마음을 불러 깨우는 것이다”<sup>44)</sup>라고 하였다. ‘心收斂不容一物’의 경우도 마음을 수렴하여 하나의 생각(물욕)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sup>45)</sup> 즉 마음이 하나의 일에 專一하면 다른 일이 들어와도 혼란스럽지 않으니 바로 하나의 물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sup>46)</sup> 이러한 의미에서 주자는 “생각은 그칠 수가 없으나 단지 敬하면 모두 없어진다”<sup>47)</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이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정신공부가 아니라 가까운 일상 속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생활공부이다. 여기에서 마음과 몸, 즉 안과 밖이 하나되는 경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내외에 부합하는 경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 2. 경은 안과 밖에 부합한다(合内外).

먼저 『숙흥야매잠집설』에서는 경을 안과 밖의 관계로 설명한다. ‘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주자는 “단지 안으로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밖으로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sup>48)</sup>라고 대답하였다. 안으로도 경을 유지하여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밖으로도 경을 유지하여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안으로도 경을 유지하고 밖으로도 경을 유지하여 안과 밖에서 한결같이 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경은 안과 밖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은 안과 밖을 관

43)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提掇」, “朱子曰, 惺惺, 內心不昏昧之謂, 只此便是敬.”

44)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提掇」, “敬非別是一事, 常喚惺此心便是.”

45)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虛一」, “和靖尹氏曰, 敬者, 其心收斂, 不容一物之謂.”

46)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虛一」, “朱子曰, 心主這一事, 不爲他事撓亂, 便是不容一物.”

47)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息慮」, “朱子曰, 思慮息不得, 只敬便都沒了.”

48)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內外一敬」, “朱子曰, 只是內無妄思, 外無妄動.”

통하니 밖이 不敬한데 안이 경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다”<sup>49)</sup>거나 “밖이 엄숙하지 못한데 안으로 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옳겠는가?”<sup>50)</sup>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밖으로 경하지 못하면서 안으로 경하는 이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숙흥야매잠집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안을 전일하게 하지 못하면 밖을 제어할 수 없고, 밖을 가지런히 하지 못하면 안을 기를 수 없다”<sup>51)</sup>거나 “밖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안을 보존하는 것이요, 안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면 밖이 이에 따른다”<sup>52)</sup>는 등이 모두 이러한 의미이다. 이것들은 모두 안과 밖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경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자는 안을 중시하고 밖을 경시하는 ‘경’의 공부방법을 비판한다. “근세 학자들의 병통은 다만 경을 지키는 공부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일마다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경이란 단지 이 마음을 보존할 수 있으면 자연히 이치에 맞게 된다고 말할 뿐이고, 용모나 말씨에 이르러서는 왕왕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sup>53)</sup> 이것은 안으로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에만 치중하고 밖으로 몸가짐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안으로의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밖으로의 몸가짐 역시 중요하다. 밖으로 정제엄숙해야 안으로도 마음을 보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밖으로 정제엄숙할 수 없으면 안으로 마음도 보존할 수 없다.

때문에 주자는 밖으로 정제엄숙하는 것이 곧 안으로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본다면 안과 밖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 이른바

49)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按>敬貫內外, 未有外不敬而內能敬者.”

50) 『夙興夜寐箴集說』第6章, 「齊莊整齊振拔精明」, “外之不嚴, 而謂能敬於內可乎.”

51)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朱子曰, 不一其內, 則無以制其外, 不齊其外, 則無以養其內.”

52)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葵軒石銘曰, 外之云肅, 攸保于中, 中之克固, 外斯率從.”

53)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答林擇之書曰, 近世學者之病, 只是合下欠却持敬工夫, 所以事事減裂. 其言敬者, 又只說能存此心, 自然中理, 至於容貌辭氣, 往往全不可功.”

整齊嚴肅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보존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sup>54)</sup> 이것은 경이란 안과 밖이 서로 부합하니 밖을 엄숙하게 하면 안으로 마음이 저절로 보존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이황) 역시 “평소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며 의관을 입고, 용모를 점검하고 단정히 앉아, 어깨와 등을 곧게 세우고, 보고 듣는 것을 단정히 하였던 것이다.”<sup>55)</sup>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또한 밖으로 몸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여 虛明한 것은 마치 거울이 텅 빈 것과 같고 저울이 평평한 것과 같아서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진실로 몸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다.”<sup>56)</sup> 이것은 안으로 마음을 잘 보존할 수 있으면 밖으로 몸도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밖으로 정제엄숙하는 것이 곧 안으로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고, 또한 안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곧 밖으로 몸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것이 안과 밖에서 한결같이 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산(진덕수)은 “밖으로 소리와 여색의 유혹이 없으면 안이 또한 바르게 되고, 안으로 음란하고 사특한 유혹이 없으면 밖이 또한 바르게 된다”<sup>57)</sup>라고 하였다. 안이 바르면 밖으로 여색의 유혹도 없게 되고, 밖이 바르면 안으로 음란하고 사특한 생각의 유혹도 없게 된다. 그래서 “채계하고 깨끗이 하여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옷차림을 성대하고 엄숙히 하여 그 모습을 바르게 하니, 이것은 안과 밖이 서로 그 공을 다하는 것이다”<sup>58)</sup>라고

54)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制外之實事 存心之要法」, “試於此審之, 則知內外未始相離, 而所謂莊整齊肅者, 正所以存其心也.”

55)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盥櫛端斂」, “退陶先生, 平居未明而起, 斂衲簪簪, 盥櫛衣冠, 斂容端坐, 肩背竦直, 視聽端正.”

56)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提掇」, “人之一心, 湛然虛明, 如鑑之空, 如衡之平, 以爲一身之主者, 固其直體之本.”

57)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內外一敬」, “西山眞氏曰, 外無聲色之誘, 則內亦正矣; 內無淫慝之惑, 則外亦正矣.”

58)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西山眞氏曰, 齊戒明潔以正其心, 盛服儼然以正其容, 此內外交致其功也.”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경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경이 안과 밖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 3. 경은 동과 정을 관통한다(貫動靜).

또한 『숙흥야매잠집설』에서는 경을 내외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정의 관계로도 설명한다. “경이라는 글자는 동정을 관통한다.”<sup>59)</sup> 여기에서 ‘동정을 관통한다’는 말은 경을 동과 정 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미현은 “경은 동정을 관통하니 만약 動을 빠뜨리고 靜을 구하거나 靜을 빠뜨리고 動을 구하면 공부에 끊어짐이 있어서 학문이 반드시 어긋나게 된다”<sup>60)</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의 본체가 有無를 관통하고 動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 공부 역시 有無를 관통하고 動靜을 갖추어야 비로소 새는 것이 없다”<sup>61)</sup>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마음의 본체가 동정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 공부 또한 동정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 공부 역시 동정을 갖추고 있으므로 진실로 動을 싫어하여 靜을 구해서도 안되며, 體에 어두워서 用에 달려가서도 안된다.”<sup>62)</sup> 이것은 동과 정 또는 체와 용의 두 측면에서 한결같이 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에 대응하는 일상의 동적인 활동을 거부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체를 세우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은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경이 동정을 관통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이 없을 때가 없으므로 경 공부는 일에 응하는 곳에서 힘쓰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

59)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敬貫動靜」, “答林擇之書曰, 敬字通貫動靜.”

60)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按>敬貫動靜, 若失於動而求於靜, 失於靜而求於動, 則工夫有間斷, 學問必舛誤.”

61)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靜存」, “心體通有無該動靜, 故工夫亦通有無該動靜, 方無透漏.”

62)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故其用功, 亦通動靜而該體用, 固不可厭動而求靜, 亦不可昧體而趨用也.”

이다. 그래서 한강(정구)도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매번 動에서 실수하기 때문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動處에 나아가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다.<sup>63)</sup> 이것은 경 공부가 일에 응하는 곳에서 힘쓰기가 어려운 것을 토로한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자도 “경 공부는 일에 응하는 곳에서 힘쓰기가 어려우니 이 또한 평상의 이치이다”<sup>64)</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미헌은 『숙흥야매잠집설』에서 먼저 일 위에서 경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마음> 어찌 항상 고요할 수 있겠는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모름지기 일에 응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일이 없을 때는 있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이 있으니, 일이 많아 나를 요란하게 하므로 우선 가서 靜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敬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일이 앞에 닥쳤는데도 자기는 도리어 고요함을 주로 하여 완전히 응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곧 마음이 모두 죽어버린 것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敬이 속에 있고 일이 있을 때에는 敬이 일 위에 있어서 일이 있든 일이 없든 나의 敬은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어야 한다.<sup>65)</sup>

마음의 고요한 본래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에 닥쳐서는 일 위에서 경을 유지해야 한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어찌 일이 없을 때가 있겠는가? 일이 있으면 일에 응해야 하니, 일이 많아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일을 버려두고 마음을 고요히 하게 가서 정좌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경의 모습이 아니다. “한가하고 고요하여 일이 없을 때도 경을 쓰고, 사

63)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常目」, “寒岡曰, 凡人作事, 每失於動, 故聖人教人, 必就動處下工夫.”

64)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敬字工夫, 於應事處, 用力爲難, 此亦常理.”

65)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曰如何都靜得. 有事須著應, 人在世間, 未有無事時節, 自朝至暮, 有許多事, 不成說事多, 撓亂我且去靜坐, 敬不是如此, 若事至前而自家却要主靜頑然不應, 便是心都死了. 無事時, 敬在裏面, 有事時, 敬在事上, 有事無事, 吾之敬未嘗間斷也.”

물에 응접할 때도 경을 쓰며, 마음이 속에 있을 때도 이와 같이 하고, 움직여서 밖으로 나와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한다.”<sup>66)</sup> 즉 일이 있을 때는 일처리 속에서 경을 유지해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함 속에서 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에는 경이 고요함 속에 있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이 일 위에 있어서 일이 있든 일이 없든 경은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일에 응하거나 외물에 접할 때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경이란 일에 응해서 뿐만 아니라 앉아있을 때나 발을 들고 걸을 때도 경해야 하며<sup>67)</sup>, 또한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경해야 한다. “날이 저물어 편안히 쉬는 것이 바로 敬이니, 날이 저물어서 편안히 쉬는 것이 태만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비로소 敬의 이치를 논할 수 있다.”<sup>68)</sup> 날이 저물어서 편안히 쉬는 것은 바로 잠잘 때의 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 하루의 일을 마치는 모든 것들이 경의 모습이 된다. 때문에 대산(이상정)은 “닭이 울어 일어나 선을 행하는 것은 깨어났을 때의 敬이고, 날이 저물어 편안히 쉬는 것은 잠잘 때의 敬이니, 군자는 어느 때든 힘쓰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sup>69)</sup> 하루의 어느 때든 경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남당이 「숙흥야매잠」을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에 응하는 것을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未發의 때와 상대하여 已發이라고 부른다. 이발의 때에는 미발 때의 마음상태가 잘 발현되는지를 살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省察’ 공부라 한다.

66) 『鳳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北溪陳氏曰, 閒靜無事時也用敬, 應事接物時也用敬, 心在裏面也如此, 動出外來做事也如此.”

67) 『鳳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隨事致敬」, “敬不是僦坐地, 舉足動步, 常要此心在這裡.”

68) 『鳳興夜寐箴集說』第6章, 「夜寐」, “南軒張氏曰, 某以爲嚮晦入宴息乃敬也, 知嚮晦宴息之爲非怠惰, 乃可論敬之理.”

69) 『鳳興夜寐箴集說』第6章, 「夜寐」, “大山曰, 鷄鳴爲善, 既寤時敬也, 嚮晦宴息, 方寢時敬也, 君子無時不用其力.”

한편 『숙흥야매잠집설』에서는 일에 응하는 동적인 상황보다는 일에 응하기 이전의 고요함(靜)을 근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경을 지키는 것은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는다.”<sup>70)</sup>, “성인은 동정의 덕을 온전히 하되 항상 고요함에 근본한다.”<sup>71)</sup>, “靜은 動을 기르는 근본이다.”<sup>72)</sup>, “동과 정의 時分이 같지 않지만 動은 반드시 靜을 바탕으로 삼으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sup>73)</sup> 이것은 경이 비록 동정을 관통하지만 靜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것은 체용의 관계로도 설명하니 “고요함이 體가 되고 움직임이 用이 되지만 體가 세워진 뒤에 用이 행해질 수 있다.”<sup>74)</sup> 즉 본체에 해당하는 靜이 근본이니 근본이 서야 동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고요한 상태를 이발과 상대하여 未發이라고 부른다.

이어서 주자는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마음이 아직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고요해야 일을 할 때에 기력이 있게 된다. 만약 고요해야 할 때에 고요하지 않으면 사려가 흩어지고 혼란스러워서 <막상>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먼저 지쳐버린다.”<sup>75)</sup> 이것은 고요한 미발의 때에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이발의 때에 일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를 튼튼히 기르는 일에 해당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나 잎의 생장과 발육도 왕성할 수 있듯이, 마음의 본체인 未發 때의 기상을 잘 보존해야 일에 직면해서도 잘못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을 근본으로 하는 본원상의 공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본원상의 공부를 ‘存養’ 공부라고 부른다. 이러한 본원상의 공부

70)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敬靜合一」, “持敬, 以靜爲本.”

71)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全其心德」, “聖人全動靜之德, 而常本之於靜也.”

72) 『夙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靜者養動之本.”

73) 『夙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按>動靜之時分, 雖不同, 動必有資於靜, 此自然之理.”

74)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靜坐爲善學」, “靜爲體, 動爲用, 而體立而後, 用有以行.”

75) 『夙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心於未遇事時, 須是靜, 臨事方用, 便有氣力, 如當靜時不靜, 思慮散亂, 及至臨事, 已先倦了.”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발의 때에도 생각의 단서를 바르게 할 수 없다. 이에 주자는 “사람이 비록 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람의 표준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靜을 주로 해야 한다. 오직 靜을 주로 하면 動으로 드러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고 본연의 체를 잃지 않는다”<sup>76)</sup>라고 하였다. 비록 사람에게는 동적인 상황이 없을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고요함을 표준으로 세워야 마음의 본체가 확립되어 일상의 동적인 일들이 모두 절도에 맞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자는 “학문이 일에 임하여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고요한 가운데 공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sup>77)</sup>라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고요함을 주로 하는 主靜의 공부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오로지 고요함을 주로 하는 정좌에만 힘쓰고자 하면 또한 한쪽으로 추락하게 된다.”<sup>78)</sup> 이에 『숙흥아매잡집설』에서는 靜만을 주장하면 석씨의 설로 빠지게 된다고 경계한다. “지금 고요함을 주로 할 것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사물을 버리고서 고요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sup>79)</sup> 이것은 고요함에 치우쳐서 사물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불교의 좌선에 대한 비판이다. 때문에 主靜만을 말하면 자칫 석씨의 설로 빠져드니 ‘靜’자를 쓰지 말고 ‘敬’자를 쓸 것을 강조한다. “靜만을 말하면 바로 석씨의 설로 들어가니 靜자를 쓰고 않고 敬자를 쓸 뿐이다.”<sup>80)</sup> 여기에서 고요함을 주로 하는 ‘정’자를 쓰기보다는 동정을 관통하는 ‘경’자를 즐겨 쓰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靜만을 강조할 경우 동정을 관통하는 경의 실천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76) 『鳳興夜寐箴集說』第7章, 「附錄-靜爲養動之本」, “人雖不能不動, 而立人極者, 必主乎靜, 惟主乎靜, 則其著於動也, 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體(體).”

77) 『鳳興夜寐箴集說』第5章, 「動靜」, “學問臨事不得力, 固是靜中欠却工夫.”

78) 『鳳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答潘子善書曰, 欲專務靜坐, 又却墮落那一邊去.”

79) 『鳳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存養之功」, “今雖說主靜, 然亦非棄事物以來靜.”

80) 『鳳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敬靜合一」, “伊川曰, 才說靜, 便入於釋氏之說也, 不用靜字, 只用敬字.”



주자는 “도리는 본래 動의 때에도 있고 靜의 때에도 있어서 어느 곳이든 이 도리가 아님이 없으니, 오로지 고요한 곳에서만 나아가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sup>81)</sup> 이것은 靜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동과 정의를 양면을 아우를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숙흥야매잠집설』에서는 동과 정을 관통하여 경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한다.

움직일 때에 고요함이 없을 수 없는 것은 고요할 때에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고요할 때에 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움직일 때에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sup>82)</sup>

고요할 때에 보존하지 못하면 근본을 세울 수 없고, 움직일 때에 살피지 못하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 없다.<sup>83)</sup>

결국 경이란 동정을 관통하여 실현된다는 말이다. 경으로써 고요함을 기르고 경으로써 움직임을 살피야 하니 둘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에 고요함이 없을 수 없는 것은 고요할 때에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동과 정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산(진덕수)은 “고요할 때에 存養하면 천리의 본연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움직일 때에 省察하면 인욕이 장차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동정은 그 힘을 함께 써야 한다”<sup>84)</sup>라고 강조한다. 미발 때의 존양공부와 이발 때의 성찰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고요할 때에 천리의 본연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움직일 때에 인욕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나가야 “일이 없을 때는 자신을 지키는데 敬하고, 일에 응할 때에는 일에 응하는데 敬하며, 독

81)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敬靜合一」, “朱子曰, 道理自有動時自有靜時, 無處不是道理, 不可專要去靜處求.”

82) 『夙興夜寐箴集說』第2章, 「附錄-敬靜合一」, “動之不能無靜, 猶靜之不能無動也; 靜之不能無養, 猶動之不可不察也.”

83)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內外動靜無不敬」, “靜而不存, 則無以立其本; 動而不察, 則無以勝其私.”

84)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內外動靜無不敬」, “靜而存養, 則有以全天理之本然; 動而省察, 則有以防人欲於將萌, 動靜兼用其力也.”

서할 때는 독서하는데 敬하면, 자연히 모두 동정을 관통하여 어느 때든 마음이 보존되지 않음이 없게 된다.”<sup>85)</sup> 이것은 또한 사미헌의 “경은 동과 정을 관통하니 만약 동을 빠뜨리고 정을 구하거나 정을 빠뜨리고 동을 구하면 공부에 끊어짐이 있어서 학문은 반드시 어긋난다”<sup>86)</sup>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배우는 자는 진실로 동과 정 의 두 공부를 다 해야 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거나 폐기해서는 안된다.

#### 4. 경의 공효

이상에서처럼, 『숙흥야매잡집설』에서는 경이란 안과 밖, 동과 정 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이에 안과 밖, 동과 정 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경을 실천해나갈 경우 『중용』에서 말하는 ‘中’과 ‘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요할 때에 한순간도 中이 아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바르고 천지의 마음 또한 바르다. 움직일 때에 하나의 일도 和가 아님이 없으면 내 기운이 순조롭고 천지의 기운 또한 순조롭다. 이것은 萬化의 본원이요, 一心의 묘용이요, 聖神의 능사요, 학문의 지극한 공로이다.<sup>87)</sup>

고요할 때에 경으로써 마음을 보존할 수 있으면 마음의 본체는 中의 상태가 되어 천하의 大本이 세워지고, 또한 움직일 때에 경으로써 살필 수 있으면 모든 일이 절도에 맞아 和의 상태가 되어 천하의 達道가 이루어진다. 中

85)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無事時, 敬於自持, 及應事時, 敬於應事, 讀書時, 敬於讀書, 便自然該貫動靜, 心無時不存.”

86)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敬貫動靜」, “<按>敬貫動靜, 若失於動而求於靜, 失於靜而求於動, 則工夫有間斷, 學問必舛誤.”

87)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全其心德」, “靜而無一息之不中, 則吾心正而天地之心亦正; 動而無一事之不和, 則吾氣順而天地之氣亦順, 此萬化之本原, 一心之妙用, 聖神之能事, 學問之極功.”

과 和, 大本과 達道가 모두 경에 근본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내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자도 “경으로써 자기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sup>88)</sup>, “공손함을 독실하게 하여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sup>89)</sup>라고 하였으니,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이 모두 경에 근본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경을 유지하면 천지는 저절로 자리를 잡고 만물은 저절로 길러져서 化育의 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성현의 수많은 말과 크고 작은 일을 살펴보면 경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sup>90)</sup>, 이 때문에 하루도 경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은 한 마음의 주재요 온갖 일의 근본이다”<sup>91)</sup>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萬化의 본원이요, 一心의 묘용이요, 성인의 能事요, 학문의 지극한 공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도 경의 실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늘이 사람을 낳았으니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인과 우인이 어찌 달라지는가? 敬과 肆에 따라 나누어진다.”<sup>92)</sup>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선량한 마음을 부여받지만, 경으로써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천리가 혼매해져서 大本이 서지 못하고 또한 경으로써 절제하지 못하면 인욕이 방자해져서 達道가 행해지지 못한다.<sup>93)</sup> 경으로 마음을 보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타고난 선량한 마음이 어둡고 방자해져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 이로써 성인과 우인의 차이가 생겨난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선인들은 항상 경으로 몸을

88) 『論語』, 「憲問」, “子路問君子。子曰, 脩己以敬。曰, 如斯而已乎? 曰, 脩己以安人。曰, 如斯而已乎? 曰, 脩己以安百姓。脩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89) 『中庸』, 第33章, “是故君子篤恭而天下平.”

90)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凝神」, “聖賢千言萬語小事大事, 莫不本於敬.”

91) 『夙興夜寐箴集說』第4章, 「附錄-隨事致敬」, “<按>敬者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也.”

92)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南軒張氏敬齋銘曰, 天生斯人, 良心則存, 聖愚曷異, 敬肆是分.”

93)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全其心德」, “靜而不知所以存之, 則天理昧而大本有所不立矣; 動而不知所以節之, 則人欲肆而達道有所不行矣.”

뉘어서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온전히 보존하였으니,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경’에 근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이 온갖 선의 근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남헌(장식)은 그의 「敬齋銘」에서 경의 공효는 天德에 부합하니 한결 같이 경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경의 공효는 天德에 부합한다. 아 그대들! 공경하고 공경하라. 힘쓰기를 오래하면 저절로 알게 되니 어렵다고 꺼려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라.”<sup>94)</sup>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뜻이 없게 되며, 마음이 늘 광명하여 개인의 한 몸에서부터 가정·국가·천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못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배우는 자들이 학문하는 이유이고 성인이 성인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 IV. 결론

이상으로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 속에 보이는 경의 내용과 그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사실 「숙흥야매잠」의 내용 역시 「경재잡」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해 보이는 경의 실천방법이 성인이 되는 학문, 즉 聖學을 완성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때문에 사미헌을 포함한 많은 유학자들이 남당의 「숙흥야매잠」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미헌은 「숙흥야매잠」의 내용에 근거하여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 『숙흥야매잠집설』을 지어 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 역시 대산의 『경재잡집설』에서처럼 경을 크게 내외와 동정의 두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먼저 내외의 측면에서는 밖으로

---

94) 『夙興夜寐箴集說』第5章, 「附錄-內外動靜無不敬」, “惟敬之功, 協乎天德. 嗟爾君子, 敬之敬之, 用力之久, 其惟自知, 勿憚其艱, 而或怠遑.”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과 같은 정제업숙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主一無適, 常惺惺法, 心收斂不容一物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과 몸, 즉 안과 밖이 하나되는 경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밖(용모)을 엄숙히 하는 것은 안(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안을 보존할 수 있으면 밖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을 서로 길러주는 경의 방법이며, 동시에 내외에 부합하는 경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의 특징은 또한 動靜의 관계로도 설명된다. 이것은 경이란 동정을 관통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일이 있을 때도 경해야 하고 일이 없을 때도 경해야 한다. 일이 있을 때는 일처리 속에서 경해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함 속에서 경해야 한다. 이렇듯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 또는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에 한결같이 경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털끝만한 잘못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동정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靜을 근본을 삼아야 하며, 그렇다고 靜만을 강조할 경우 主靜의 폐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처럼 사미헌의 『숙흥야매잠집설』은 「숙흥야매잠」의 내용에 근거하여 경의 의미를 내외와 동정의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오늘 하루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는 학문의 요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갔으며, 또한 일이 있을 때는 일처리 속에서 경을 유지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함 속에서 경을 유지함으로써 조금의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아닌 현실 속의 구체적 생활공부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물론 일상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경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사미헌은 여러 선현들의 학설을 모아 『숙흥야매잠집설』(50세, 1865)을 지어 경의 실천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특히 『성학십도』의 제9도인 「경재잠도」와 제10도인 「숙흥야매잠도」에서 경의 수양론적 실천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聖學의 학문적 귀결이 수

양론을 떠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미헌은 퇴계의 수양론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19세기 韓末이라는 국가존망의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 퇴계학과 중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에 붕괴되는 전통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도덕성 회복을 통한 인간 완성의 차원에서 수양론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숙흥야매잡」의 주석서이며 수양론에 관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숙흥야매잡집설』을 저술하는데, 이를 통해 정주학 수양론의 중심이 되는 경의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화시킴으로써 퇴계학과의 수양론적 전통을 계승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유학 사상사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장태도 “사미헌의 『숙흥야매잡집설』은 퇴계철학에서 경의 문제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데 있어서나 성리학의 수양론을 정밀하게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sup>95)</sup>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95) 금장태·고광직,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6, p.508 참조

## 참고문헌

『四末軒集』  
『夙興夜寐箴集說』  
『敬齋箴集說』  
『論語』  
『中庸』  
『朱子語類』  
『朱熹集』  
『二程全書』  
『退溪全書』

- 금장태·고광직, 『儒學近百年』, 박영사, 1986.  
이광률, 『주자철학연구』, 중문, 1995.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陳來, 이종란 외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장세완 외, 『국역 숙흥야매잠집설』, 사미헌선생기념사업회, 200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예문서원, 2009.
- 류정동, 「퇴계의 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1975.  
김수청, 「주희의 경사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1994.  
정순우, 「사미헌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 연구」, 『영남학』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김수일, 「퇴계의 성인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2011.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敬齋箴集說』속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 『온지논총』50, 온지학회, 2017.

Abstract

## A study on the 'Sukheungyamaejamjipseul' of Samiheon

An, Yoo-kyoung

This paper is consider of the contents and theoretical structure, which is seen in the Kyoung of Samiheon(1815~1900) of 'Sukheungyamaejamjipseul'.

'Sukheungyamaejam' was written by Namdang(Jinbaek) in China, which is offering concrete ways to how you're going to behave in a day's Kyoung in the morning from early morning to late night. Toegye makes it into a painting titled 'Sukheungyamaejamdo' in Seonghaksipsido 10th.

Meanwhile, Saminheon details the 'Sukheungyamaejam'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Toegye's 'Sukheungyamaejamdo'. In this process, he gathered various proverbs from China and Korea of scholars and divided them into chapters to edited the 'Sukheungyamaejamjipseul'. It is a collection of theories about the theory of the Kyoung. Thus in the text of the book, Samicheon's essay on the theory of Kyoung, which collect a theories of different ancestors and considers its theoretical structure.

### Keywords

Samiheon, Sukheungyamaejamjipseul, Kyoung, Inside and outside, Dong and Jung